

국토정책 Brief

제 239 호
2009. 8. 10

주요 국가의 국토정책 최신 동향시리즈 ②

중국의 최근 지역발전 동향과 시사점

이상준(국토연구원 연구위원), 박인성(중국 저장대학교 교수)

-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강국을 노리는 중국은 11차 5개년계획(2006~2010)에 따라 베이징-톈진을 중심으로 한 환발해지역 등 주요 경제권의 개발과 '5종 5형' 고속도로망 등 인프라 개발을 통해 국가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해 가고 있음
- 중국의 최근 지역개발은 '빠른 개발속도', '광역 도시권 개발', '전략적 국제협력'이라는 3대 특징을 보이고 있음

첫째, 빠른 개발속도

- 선전(ShenZhen) 스피드: 1980년 인구 3만 명에서 2008년 말 880만 명의 대도시로 발전(같은 기간 전국 도시화율은 18%에서 46%로 급성장)
- 초고속 교통망 건설: 전국 주요 대도시 간을 연결하는 시속 300km 수준의 초고속철도 건설로 베이징-톈진 간 120km를 29분에 주파

둘째, 광역 도시권 개발

- 장강삼각주 도시군(11만km², 8,265만 명), 베이징-톈진-허베이 도시군(18.3만 km², 7,021만 명) 등 12대 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개발 추진

셋째, 전략적 국제협력

- 단순한 외자유치 차원이 아니라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지역개발 추진: 톈진 빈하이신구 생태신도시 개발 등

■ 시사점(새로운 국토공간 경쟁력)

- 중국 도시권 성장에 대응한 우리의 새로운 국토공간 전략 추진이 필요
- 향후 국토전략에도 시간적 차원의 「속도의 경쟁력」, 「광역공간의 경쟁력」, 「도시경쟁력」, FTA시대 부응 「글로벌 연계 경쟁력」을 동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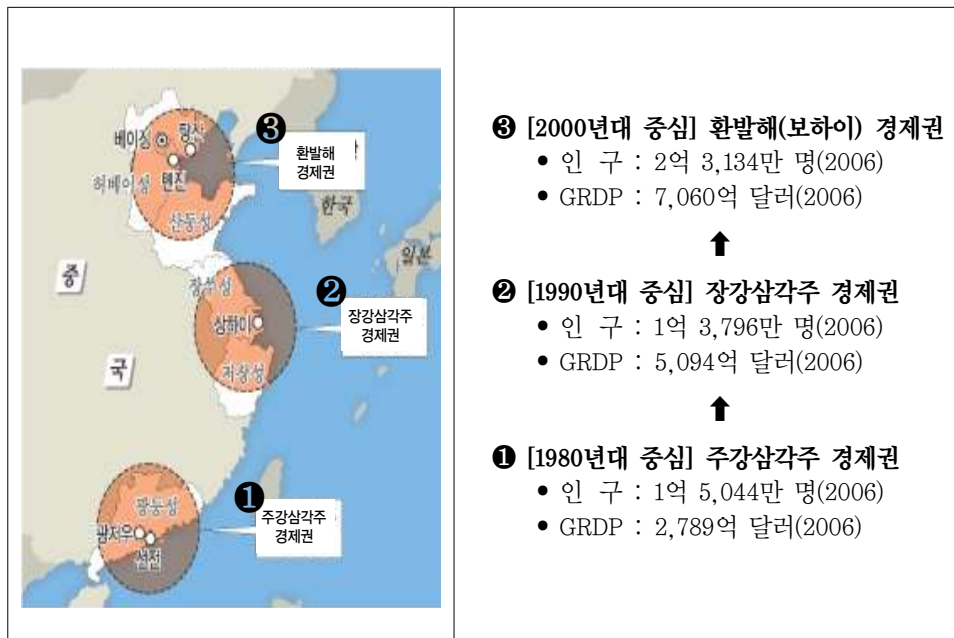
1. 중국의 지역개발과 국가경제 성장

● 빠른 속도의 도시발전과 국가경제 성장

■ 1978년 말 개혁·개방을 시작한 이후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발전과 지역의 인프라 확충이 급속히 진행되었음

- 국토면적의 10%인 도시에 인구의 46%가 거주, 경제력(GDP)은 60% 차지
- 1980년대에는 선전 등 주강삼각주지역이, 1990년대에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장강삼각주지역이 개발의 중심지대였음
- 2000년대 들어서는 장강삼각주와 더불어 베이징, 톈진을 중심으로 한 환발해 경제권이 새로운 성장지대로서 부각되고 있음
- GDP(국내총생산)는 지난 30년간 68.5배 증가하여 연평균 9.8%씩 성장
- 1인당 GDP는 '78년 381위안에서 '07년 1만 8,934위안(약 2,593달러)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8.6%씩 성장
- 도로총연장은 '78년 88.3만km에서 '06년 201.5만km로 증가
- 철도총연장은 '78년 5.3만km에서 '06년 7.7만km로 증가
- 항공노선연장은 '78년 19.5만km에서 '04년 204.9만km로 증가

[그림 1] 중국 개혁·개방 30년간 주요 개발의 중심지 이동(1978~2007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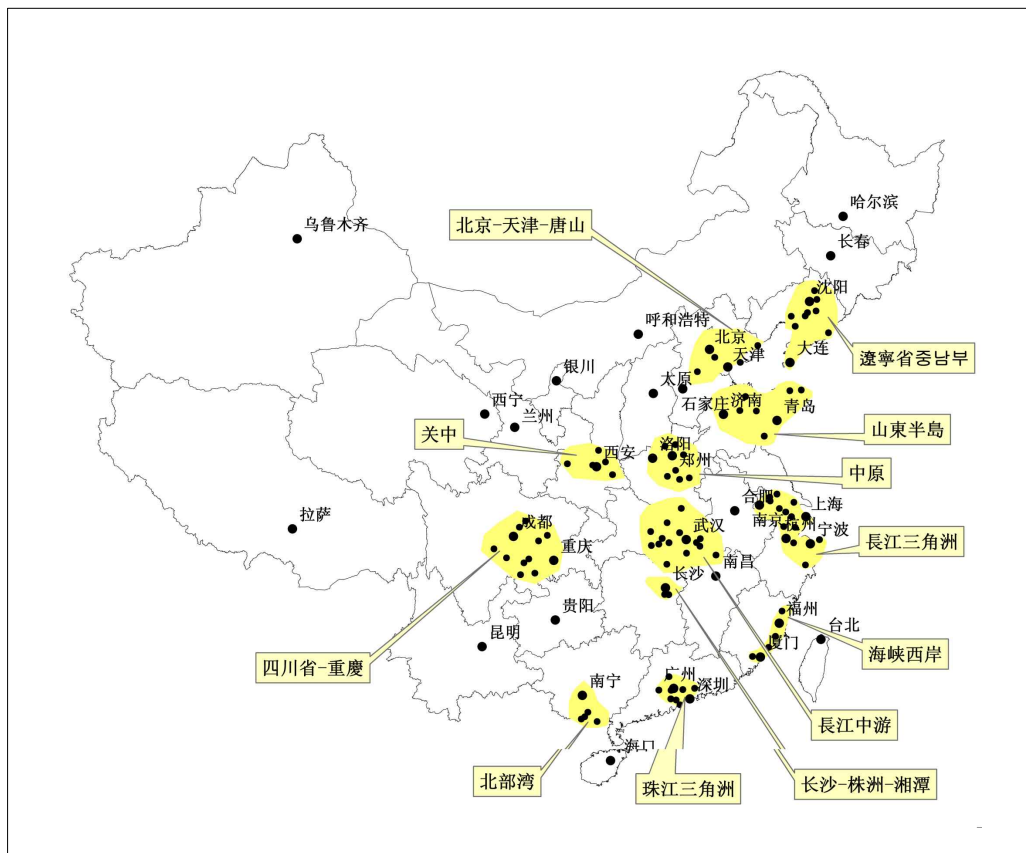
- 컨테이너 물동량은 '90년 156만 TEU(한국의 63%, 일본의 20% 수준)였으나, '06년의 경우 9,631만 TEU로 한국의 약 6배 수준까지 증가(컨테이너 물동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 13.3%, 중국 29.5%, 일본 5.6%)

2. 중국의 12대 도시권 형성과 인프라 개발구상

● 중국의 도시권 성장과 개발축 형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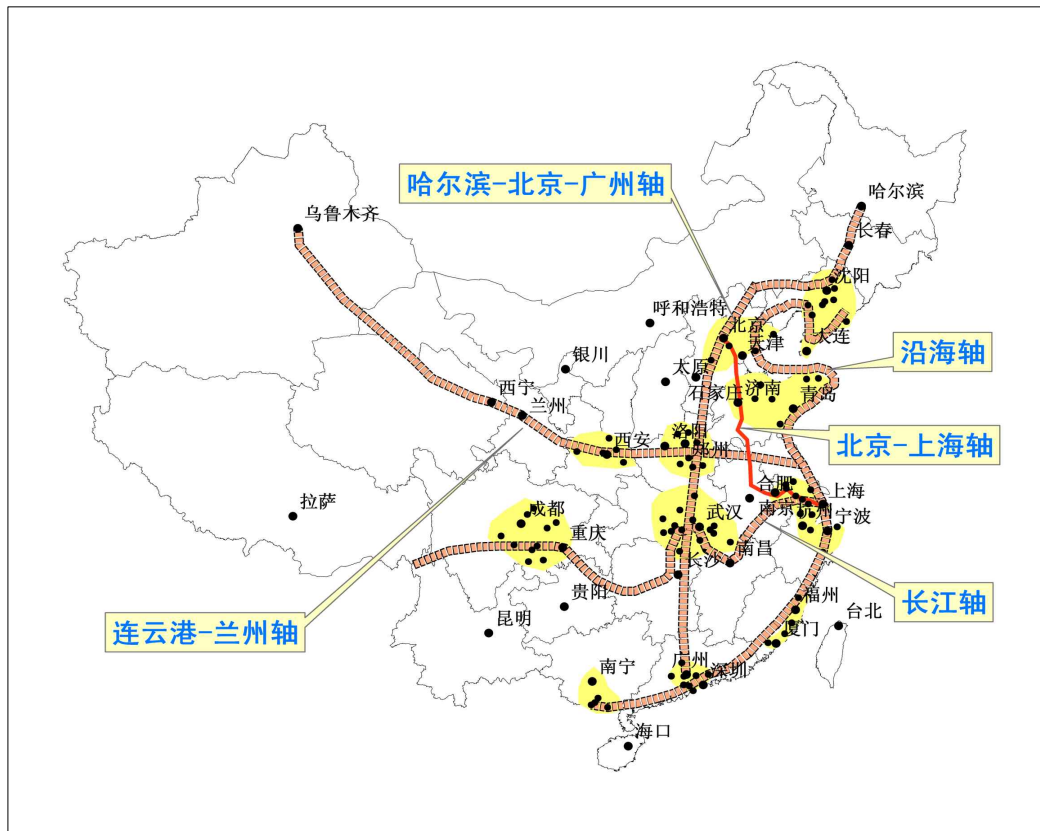
- 연해지역 경제특구 및 개방항구도시를 중심으로 점(點)-축(軸)-면(面)-망(網)의 형태로 발전이 확대되며 광역화되고 있음
 - 상하이-난징-항저우축을 중심으로 하는 장강삼각주, 홍콩-선전-광저우축을 중심으로 하는 주강삼각주, 베이징-톈진축을 중심으로 하는 징진지(京津冀)지구 등 12개 광역도시권 육성이 추진 중

【그림 2】 중국의 12개 주요 광역도시권



- 과거 30년 동안 점과 면 중심의 지역개발이 이루어져 왔지만 앞으로는 연안축 등 5개 발전축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
 - 연안축, 하얼빈-베이징-광저우축, 베이징-상하이축 등 3개의 종축과 장강축, 연운항축 등 두 개의 횡축을 중심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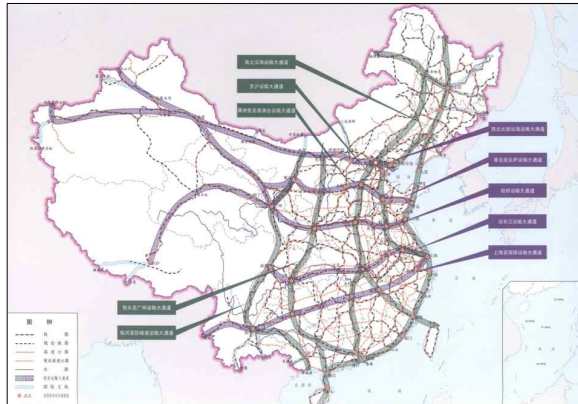
[그림 3] 중국의 미래 발전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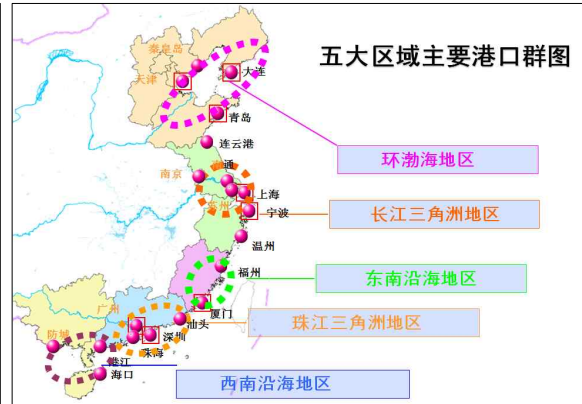
● 중국의 종합적인 고속교통망 구축 추진

- 2020년을 목표로 한 중국의 종합교통망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는 5종 5형 고속도로망 계획, 5대 항만군 개발, 국내외 항공망 확충 등이 예정되어 있음
 - 특히 5대 항만군의 개발과 5종 5형 고속도로망 구상은 우리와 중국의 물류연계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대상임
 - 2006년 147개에서 2020년 244개로 확대될 공항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음
 - 광역적인 고속교통망 확충은 중국 내 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의 활성화와 환황해권의 한중협력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

〔그림 4〕 중국의 5종 5형 고속도로망



〔그림 5〕 중국의 5대 항만군



자료: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종합교통연구소.

- 11차 5개년계획¹⁾ 기간(2006~2010) 중 고속도로 2만 4천km 건설을 통해 중국의 고속도로 총연장은 5만 5천km에 이를 예정임(한국의 고속도로 총연장은 2008년 기준 3,447km)

3. 중국의 전략적 국제협력을 통한 지역개발의 추진

- 중국은 과거 외자유치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을 추진해 왔으나 2000년대 들어서 첨단 미래기술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국제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음

● 텐진 빈하이신구의 에코시티(Eco-City) 개발사례

- 텐진 빈하이신구²⁾는 환발해권 개발의 핵심지대로서 중국정부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물류, 제조업의 거점으로서 육성하고 있음
- 빈하이신구의 에코시티 개발사업은 기후변화 등 세계적인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환경산업과 친환경 도시개발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중국과 싱가포르 양국의 전략적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
 - 면적은 30km², 건설기간은 10~15년, 상주인구는 35만 명

1) 정식명칭은 ‘제11차 5개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에 대한 건의’로서 2005년 중국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5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되었음.

2) 중국 정부는 2006년 6월에 상하이 푸둥에 이어 텐진(天津)의 빈하이신구를 두 번째로 종합개혁실험지구로 지정하였으며, 서울의 3.7배(2,275km²)에 이르는 대규모 특구로 개발 중임.

- 소주공업원구에 이은 두 번째 중국-싱가포르 협력사업으로 추진
 - 2007년 11월 18일 중국-싱가포르 간 개발협약 체결
 - 2008년 9월 28일 1차 시범지구(400ha) 개발사업 착공
- 국가차원의 생태 및 환경분야 교육훈련센터, 첨단기술, 환경산업의 기지, 자원효율적이고 사회친화적인 살고 싶은 도시의 모델, 국제교류의 창구로서 개발
- 낙후된 염전지역에 최첨단 기술을 통한 친환경 미래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미래친환경도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임
 - 제조업 중심의 특구 이미지에서 벗어나 첨단산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해 미래 국가발전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전략을 반영
- 텐진시 도심에서 45km 거리에 있는 빈하이신구 동부 해안지대에 위치
- 베이징에서 150km, 텐진국제공항에서 40km, 텐진항에서 20km 거리임
- 다양한 정부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여건을 조성
- 중국-싱가포르 텐진 에코시티 행정관리위원회(중앙정부차원의 협력기구)가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

【그림 6】 중국 빈하이신구 에코시티 기본계획 조감도(좌) 및 모형도(우)



자료: 중국 빈하이신구 에코시티 전시관.

● **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G2시대의 개막을 추구하고 있으며, 향후 지역개발에도 이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됨**

- 미중 간의 경제협력 관계 심화가 지역개발에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음
 - 중국과 미국은 2009년 7월 28일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G2(주요 국가)로서의 입지강화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음
 -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양국은 경제, 외교, 안보, 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 원칙에 합의했으며, 에너지와 환경,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
 - 특히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미래기술 개발과 관련한 미중 협력은 미국을 지렛대로 동아시아 경제개발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전략을 반영하고 있음
 - 향후 경제와 환경분야의 미중 협력은 중국의 지역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

4. 시사점

● **글로벌 시대의 국토개발은 주변국가의 국토전략까지 감안하여 추진할 필요**

- 특히 주변국들 가운데 가장 역동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의 국토전략을 파악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 -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장강삼각주 경제권과 베이징, 톈진을 중심으로 한 환발해 경제권의 개발규모와 속도는 매우 괄목할 만한 것임
 - 환경분야에서도 빈하이신구 에코시티처럼 공격적인 구상과 투자를 하고 있어서 우리도 국가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
- 미중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한중일 협력을 통한 역내 지역개발 추진 등 국제협력의 전략적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
 - 중국이 미국과의 제휴를 통해 역내 경제 및 지역개발의 선도국으로 부상하려는 전략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

- 중국의 3대 교역국으로서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여 중국, 미국, 일본 등 역내 강국들과 협력강화 필요
- 중국과 공동으로 다자간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모범적 협력사례를 창출해야 함

● 한중교역과 투자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개발 및 인프라측면의 전략 필요

- 한중 간 항만연계 등 물류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
 - 환발해 항만의 활용을 위한 한중협력 추진이 시급하므로 한중 항만 간 win-win전략 모색
 - 낮은 수준에서부터 물류인프라 관련인력에 대한 교육협력이 필요

● 국가 차원의 對중국 전략적 대응체제 구축 필요

- 한중 지방정부 간에 교류협력 파트너를 선정하고, '초광역권'별 역할 분담 및 특성화 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
- 중국 정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교류협력 과제 발굴을 위한 노력 필요
 - 중국정부가 중시하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등을 고려하여 생태 신도시 및 유비쿼터스 주거단지 등의 개발기법을 모듈화, 상품화하여 중국 내수시장 개척
 - 온돌식 바닥난방과 좌식 주거문화, 유비쿼터스 등의 설계개념을 대중음악, TV드라마, 영화 등 문화영역에서의 조성되고 있는 한류(韓流)와 연결하여 개발사업 진출

● 중국 도시권 성장에 대응한 우리의 새로운 국토공간 전략 추진이 필요

- 향후 국토전략에도 시간적 차원의 「속도의 경쟁력」, 「광역공간의 경쟁력」, 「도시경쟁력」, FTA시대 부응 「글로벌 연계 경쟁력」을 동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

● 국토연구원 한반도·글로벌국토전략센터 이상준 연구위원 (sjlee@krihs.re.kr, 031-380-0175)

● 중국 저장대학교 박인성 교수(국토연구원 초빙연구원) (ispark@hanmail.net, 031-380-0228)

참고문헌

- 肖金成, 袁朱等编, 2009·3, 중국10대도시군(中国十大城市群), 경제과학출판사.
- 肖金成, 高国力等, 2008·1, 중국공간구조 조정 신사고(中国空间结构调整新思路), 경제과학출판사.
- 祝尔娟等, 2009·1, 새로운 위상설정하의 베이징-톈진 합작발전 연구(全新定位下京津合作发展研究), 중국경제출판사.
- 祝尔娟主编, 2008·6, 베이징-톈진-허베이성 도시권 발전신론(京津冀都市圈发展新论), 중국경제출판사.